

채비

작고 아름다운 이별

2024년 4월 뉴스레터 vol. 75
한겨레두레협동조합

- | | |
|------------|---------------------------------|
| 채우고 비우고 | 벚꽃엔딩 |
| 채비추모장례 이야기 | 공간채비에 애도의 꽃이 피었습니다. |
| 숫자로 보는 채비 | 한국 노인이 선호하는 생의 마지막 장소와 실제 임종 장소 |
| 채비학교 | '채비플랜' 수강생 모집 |

벚꽃 엔딩



“낮선 정적이 감돌았다. 새들은 도대체 어디로 가버린 것일까? 이런 상황에 놀란 마을 사람들은 자취를 감춘 새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새들이 모이를 쪼아 먹던 뒷마당은 버림받은 듯 쓸쓸했다. 죽은 듯 고요한 봄이 온 것이다.”

20세기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책으로 알려진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은 이렇게 짙막한 우화로 시작한다.

나는 3월 18일부터 사흘간 양양 속초 강릉 일대를 돌아볼 일이 있었다. 거리 곳곳에는 벚꽃 축제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렸다. 바로 그 주간에.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를 밑돌았고 한낮에도 영상 10도에 머물렀다. 눈이 내리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었다. 이런 날씨에 벚꽃이 핀다고?

아니나 다를까. 속초시는 ‘2024 영랑호 벚꽃축제’ 개막을 사흘 앞둔 3월 27일 긴급 공지를 통해 올해 벚꽃축제를 두 번에 나눠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속초시는 SNS를 통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라고 탄식했다. 속초뿐 아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벚꽃축제'의 경우에도 3월 29일 벚꽃의 꽃봉오리만 올라온 상태로 개막했다.

지난해 유독 빨리 피어버린 벚꽃에 서울은 물론 각 지자체들은 벚꽃이 다 지고 난 뒤 벚꽃축제를 열 수밖에 없었다. 이에 올해에는 너나 할 것 없이 벚꽃축제 기간을 개화 예상 시기에 맞춰 약 일주일가량 앞당겼는데, 꽃샘추위가 길어지면서 축제 기간에 꽃 자체도 보기 어렵게 됐다.

이처럼 벚꽃 개화 시기를 예측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내가 사는 남양주시 별내동에도 벚꽃은 예년보다 늦게 피었다. 그것도 시간차를 두고 여기저기 따로 피었다. 어떤 것이 지면 어떤 것이 피었다. 벚꽃이 무리 지어 피는 그 아름다운 광경은 이제 보기 어려워진 것일까.

“거미를 싫어하는 가정주부가 있었다. 8월 중순 이 여성은 지하실 전체, 계단 밑, 과일 선반, 천장과 서까래 등 구석구석에 DDT와 석유 증류물이 포함된 에어로졸 살충제를 뿌렸다. 살충제를 뿌리고 나서 몸이 아프기 시작했는데 구토와 신경불안증을 겪게 되었다. 며칠 지나고 기분이 나아졌지만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확실하지 않았기에 9월에 두 번 더 살충제를 뿌렸다. 다시 병을 앓다가 일시적으로 회복된 후 또다시 살충제 뿌리기를 반복했다. 세 번째 살충제를 뿌리고 나서는 새로운 증상이 나타났다. 열이 나고 관절에 통증이 생기며 불쾌한 느낌이 계속되었고 한쪽 다리에 정맥염이 나타났다. 이 여성은 백혈병으로 판명되었다. 그리고 다음 달 사망하고 말았다.”

〈침묵의 봄〉에 등장하는 사례이다. 이것은 우화가 아니다. 인간은 막대한 양의 화석에너지를 태우며 풍요와 번영을 누려왔다. 그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온실가스를 대기 중으로 배출했다. 마치 살충제를 마구 뿌리듯. 그렇게 만년설과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높아졌다. 이로 인해 세계 곳곳에서 전례 없는 폭염, 홍수, 가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기후위기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침묵의 봄〉이 출간된 해는 1962년이다. 그로부터 62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우리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켜왔다. 레이텔 카슨은 살충제나 제초제 같은 독성 화학물질의 남용이 가져올 치명적 결과를 경고했다. 그 경고는 무시되었고 인류는 파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돌이킬 수 있는 것일까. 침묵의 봄이 시작됐다. ✿

김경환 |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상임이사



‘채우고 비우고’는 삶과 죽음에 관한 에세이입니다

공간채비에 애도의 꽃이 피었습니다.



봄입니다. 아직 추위가 다 가시지는 않았지만, 공간채비에 꽃이 피고 풀들이 푸르러 지기 시작합니다. 그 중 하얀 목련은 단연 돋보입니다. 아주 하얗고 풍성한 꽃 봉우리가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3~4월에는 공간채비에서 추모식이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모두 연로하신 어머니셨습니다. 두 어머니 모두 젊은 시절부터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가난한 중에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일을 다 하셨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그냥 보내기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손님들에게 육개장 대접하고 부의 받고 끝내기는 어머니의 헌신과 사랑이 너무 깊었을 것입니다.

두 집이 추모하는 방식은 달랐습니다. 한 집은 어머니의 형제와 자녀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작별을 토했습니다. 상실의 아픔을 나누었습니다. 또 다른 한 집은 어머니의 형제와 자녀들만 모여서 아주 조용히 어머니에 관한 유품을 셋팅하고, 조문보를 만들어 생애를 열심히 살피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잔잔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두 추모식 모두 참 깊은 위로를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방식은 달랐지만 애도의 마음은 같았을 것입니다. 우리 조합원들이 공간채비에서 위로 받고 심을 얻고 갈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아직 우리에게서 부족함이 많습니다.

채비의 마음은 먼 미래를 향해 달리고 있지만, 우리 사회의 장례인식의 현실 바람은 차갑습니다. 채비의 능력도 인프라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조합원의 넓은 헤아림과 격려로 현재를 버티며 나갑니다. 목표를 향해서만 죽어라 달리던 우리 사회가 호흡을 가다듬고 애도하는 일이 계속 살게 하는 힘이라는 사실을 곧 깨달을 것입니다.

이제 하얗던 목련 잎도 다 떨어져 잎만 남았습니다. 직원 중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련은 저 연두색 잎만 남을 때가 더 이뻐...”

24년 한 해 공간채비가 담아낼 애도의 충만함을 향해서 계속 가보겠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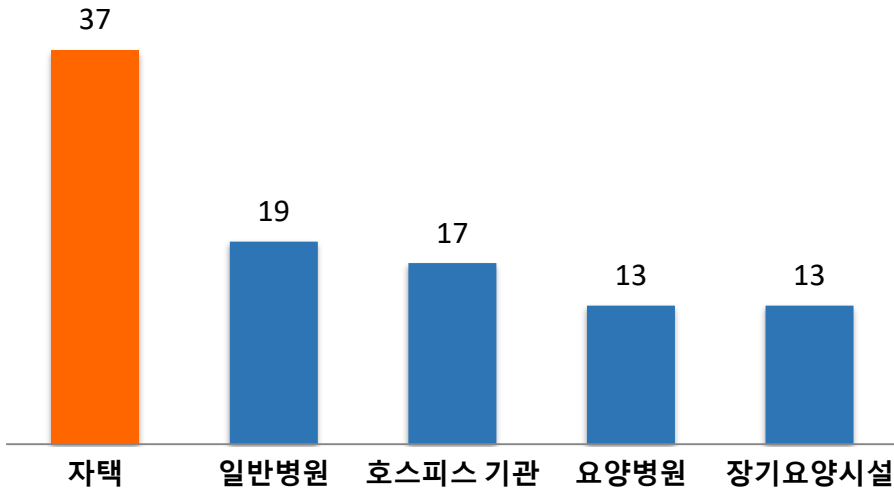
전승욱 | 채비장례 추모플래너



1

노인이 선호하는 생의 마지막 장소
한국노인이 원하는 생의 마지막 장소, ‘자택’이 가장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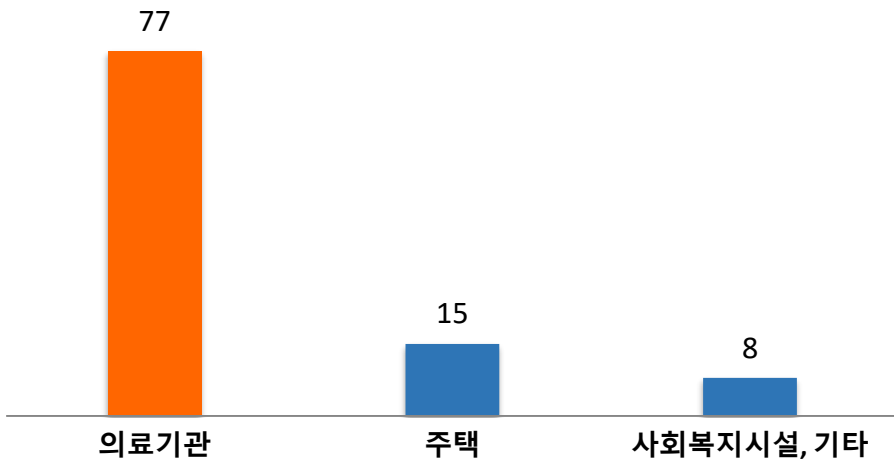
선호하는 생의 마지막 장소 (한국 노인, %)



2

노인의 실제 임종 장소
하지만 한국인 77%는 대부분 의료기관에서 최후 임종 맞아!

실제 임종 장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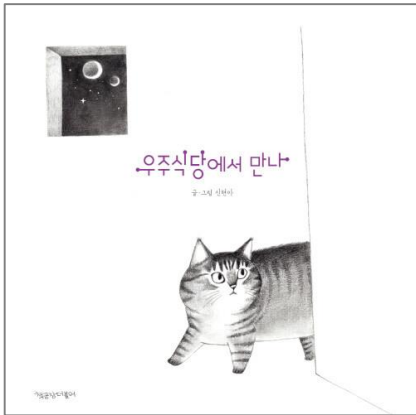


* 출처: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3권 제8호, 2022.08. (만 65세 이상 성인 1,5000명)

고양이가 왔다

우주식당에서 만나

신현아 | 책공장더불어



〈우주식당에서 만나〉는 동물 가족을 만나고 이해하고 책임지고 성장하고 잠시 헤어지고 다시 만나기까지, 네 편의 환상 동화다. 오랜 시간 여러 개, 고양이와 함께 산 작가가 그들과 함께 살아온 소중한 시간을 글과 그림으로 옮겼다. 인간에게 와서 오랜 시간 곁을 지키며 인간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준 그들은 어느 순간 늙어 떠나지만 또 다시 인간 삶에 불쑥 들어와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 작가의 시선으로 본 동물은 섬세했고, 곁이 여러 가지이며, 복잡했고, 때로는 엉뚱했고, 따뜻한 심성을 지니고 있었다. 이런 반려동물에 대한 깊은 통찰, 따뜻한 시선으로 섬세한 글과 그림을 만들어냈다.

그림 한 장, 글 한 줄이 때로는 미소 짓게 하고, 때로는 왈칵 눈물을 쏟게 하고, 때로는 깊은 생각에 잠기게 한다. 인간에게 찾아온 네 발 달린 인생의 스승들. 도대체 이 존재들은 왜 인간과 함께 살아주는 것일까. 이 책에는 인간에게 와서 함께 살아주는 반려동물에게 보내는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이 담겼다.

「어느 날, 화단에 고양이가 찾아왔어.

사람들은 고양이 없이 어떻게 사는지 몰라.

고양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 있지. 집집마다, 혹은 길가 어디든 고양이만 드나드는 구멍이 있다는 것을.

이 모든 것을 소리 없이 함께해 주고 너는 하나씩 천천히 한 번에 아주 이별하지 않고 천천히 그렇게 떠났구나.

세상에 무엇이든 되어 혹은 무엇이 되지 않아도,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아. 너는 이미 충분하니까. 신나게 떠돌다가 맘에 드는 곳에 깃들고 있으면 나는 아름답고 멋진 것을 볼 때마다 너를 생각할게.

이곳은 우주식당, 약속처럼 너를 만날 수 있는 곳. ✨

(출판사 책 소개 중에서 발췌)

‘채비플랜’ 수강생 모집

채비장례는 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고인을 기억하고 애도하며 치르는 장례식입니다. 가족 구성원이 원하는 장례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채비플랜’은 이를 위한 조합원 대상 프리미엄 강좌이며 채비장례의 실질적인 내용을 준비합니다.

빠르고 편리해진 세상에서 우리의 죽음과 이별도 간편하게 정리되고 치러집니다. 이별은 고인을 잘 보내는 일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살아갈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지 생각해볼 순간이기도 합니다.

채비플랜을 통해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좌가 필요한 조합원님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교육 소개

- 교육내용: 채비 장례 준비(추모식포함), 채비장례에 필요한 콘텐츠 제작 등
- 대상: 고인과 가족 중심의 특별한 장례식을 준비하려는 분, 채비 장례를 준비하시는 분등
- 일정: 2024년 5월 23일(목)/ 5월 30일(목) 오후 7시~ 8시 30분
- 장소: 공간채비 메인 홀(서울시 중구 서애로1길 11 헤센스마트상가 201호)
- 교육 정원: 15명 내외 (선착순 마감)
- 제공: 채비노트
- 신청 링크: <https://forms.gle/A9cEPyXfxEJuDFKeA>
- 문의: 02)722-9517/ 720-9517(오전10시~ 오후5시)

■ 프로그램

강좌	제목	강의 내용	준비물	강의 날짜
1강	웰다잉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웰다잉 입문 강의 - 채비장례 개요 	채비노트 (제공)	5/23(목) 19:00~20:30
2강	추모식과 애도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모식 준비하기 - 애도 과정 체험 (추도사, 부고 문자, 메모리얼 포스트, 유품과 생애사) 	강사 공지	5/30(목) 19:00~20:30

작은 모임 지원사업 공모

한겨레두레협동조합원을 위한 작은 모임 지원사업을 공모합니다. 공간 채비를 이용한 조합원의 적극적인 활동을 독려하고 채비장례와 연결되는 활동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 사업명: 작은 모임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4년 5월 15일 ~ 10월 31일까지
- 모집 분야: 우리 조합 사업과 관계된 모든 주제
- 모집 대상: 조합원과 조합원의 지인, 가족 등 조합 선정 기준에 부합 한 모임
- 지원 내용: 총 200만원 지원(각 모임당: 운영비 30만원, 채비 소모임 공간 7시간 이용권(70만원 상당))
- 지원 규모: 2개 모임(모임당 인원 최소 5인 이상)
- 모집기간: 2024년 4월 15일 ~ 4월 30일 오후 5시까지
- 신청방법
 - 진행: 모집 - 심사(서류 + 전화) - 선정자 발표(개별통보)
 - 문의: memorypicture@naver.com / 722-9517/ 720-9517 (오전10시~오후 5시)
 - 제출 서류: 지원 신청서(별첨 서식)
 - 신청: 이메일 접수 (memorypicture@naver.com)
- 유의 사항
 - 1) 심사 관련
 - 심사와 선정, 관련된 사항은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의 고유권한이며 심사 내용 등 관련 자료는 공개하지 않음
 - 2) 신청 관련
 - 신청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제출된 지원사업서는 사무국과 협의 하에 변경할 수 있음
 - 3) 지원 철회
 - 제출 및 협의한 사업 계획이 추진 되지 않거나 사업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 사업비의 목적 외 사용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 4) 의무와 협조 사항
 - 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 과정과 성과물 제출 (첨부 양식)
 - 홍보물로 사용 가능한 기록물 필수 (활동 영상, 사진, 활동 결과물 사진 등)
 - 본 지원사업의 결과물과 관련 자료는 향후 사업홍보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모임 홍보가 필요한 경우 사무국에서 적극 지원 함

작은모임 지원사업 신청서

☐ 신청유형 (신청할 사업유형 칸에 ☒ 체크)

활동 유형	<input type="checkbox"/> 교육 <input type="checkbox"/> 놀이 <input type="checkbox"/> 운동 <input type="checkbox"/> 예술 <input type="checkbox"/> 기타
-------	---

☐ 대표 신청자 정보

성명		조합원 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주민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주 소				
활동명		예산계획	공간 이용 회수	
참여 총 인원			예산	

위와 같이 2024년 작은 모임 지원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이름 (서명)

한겨레두레협동조합 귀하

2024년 3월

김만호 조합원 부친상
김덕안 조합원 모친상
박정연 조합원 지인상
박영규 조합원 모친상
정형 조합원 모친상
전승욱 조합원 지인상

이상연 조합원 빙모상
김낙준 조합원 부친상
신창희 조합원 모친상
김성한 조합원 모친상
서이중 조합원 배우자상
임병언 조합원 모친상

김태영 조합원 모친상
최지호 조합원 모친상
신순화 조합원 사돈상
임현택 조합원 빙모상
이옥자 조합원 모친상
이승현 조합원 부친상

2024년 2월

강순석 조합원 부친상
유종오 조합원 빙모상
이광석 조합원 모친상

백찬홍 조합원 빙부상
박성한 조합원 모친상
함영수 조합원 모친상

구연수 조합원 숙부상
윤희석 조합원 부친상
장성우 조합원 부친상

2024년 1월

최영인 조합원 모친상
성주현 조합원 본인상
최재희 조합원 사돈상
전승욱 조합원 지인상
조탁준 조합원 모친상
맹계현 조합원 시모상

임덕진 조합원 모친상
신금희 조합원 부친상
김용호 조합원 모친상
김상영 조합원 빙부상
남궁철 조합원 모친상
백숙희 조합원 부친상

이수중 조합원 지인상
백선기 조합원 지인상
김정국 조합원 형제상
김병호 조합원 모친상
고석배 조합원 부친상
정수경 조합원 배우자상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별이 아닌 작별을 위한 시간

떠나기전愛



'떠나기전愛'는 채비의 **생애작별식** 프로그램입니다.
살아생전에 지인과 친척을 초대해
고인이 주인공이 되는 아름다운 작별식입니다.

▶ 주요 프로그램

생애사/생애영상, 취미 및 업적 전시/공연, 추억과 이야기 나눔, 마지막 인사와 축복,
음식과 다과 나눔

※ 프로그램은 당사자/가족의 요청으로 함께 기획 및 변경이 가능합니다.

▶ 장소 : 공간채비 (충무로역 도보 5분)

▶ 신청 : <https://forms.gle/NKpVA2SuKCGDjKKGK7>

☎ 문의/상담 : (02) 739-9517

해피 웰다잉을 준비하는 사람들
'채우고 비우고' 오픈채팅방에 초대합니다



**어떻게 늙어가야 하는지를 아는 것은 지혜의 걸작이요,
삶이라는 위대한 예술에서 가장 어려운 장이다.**
- 앙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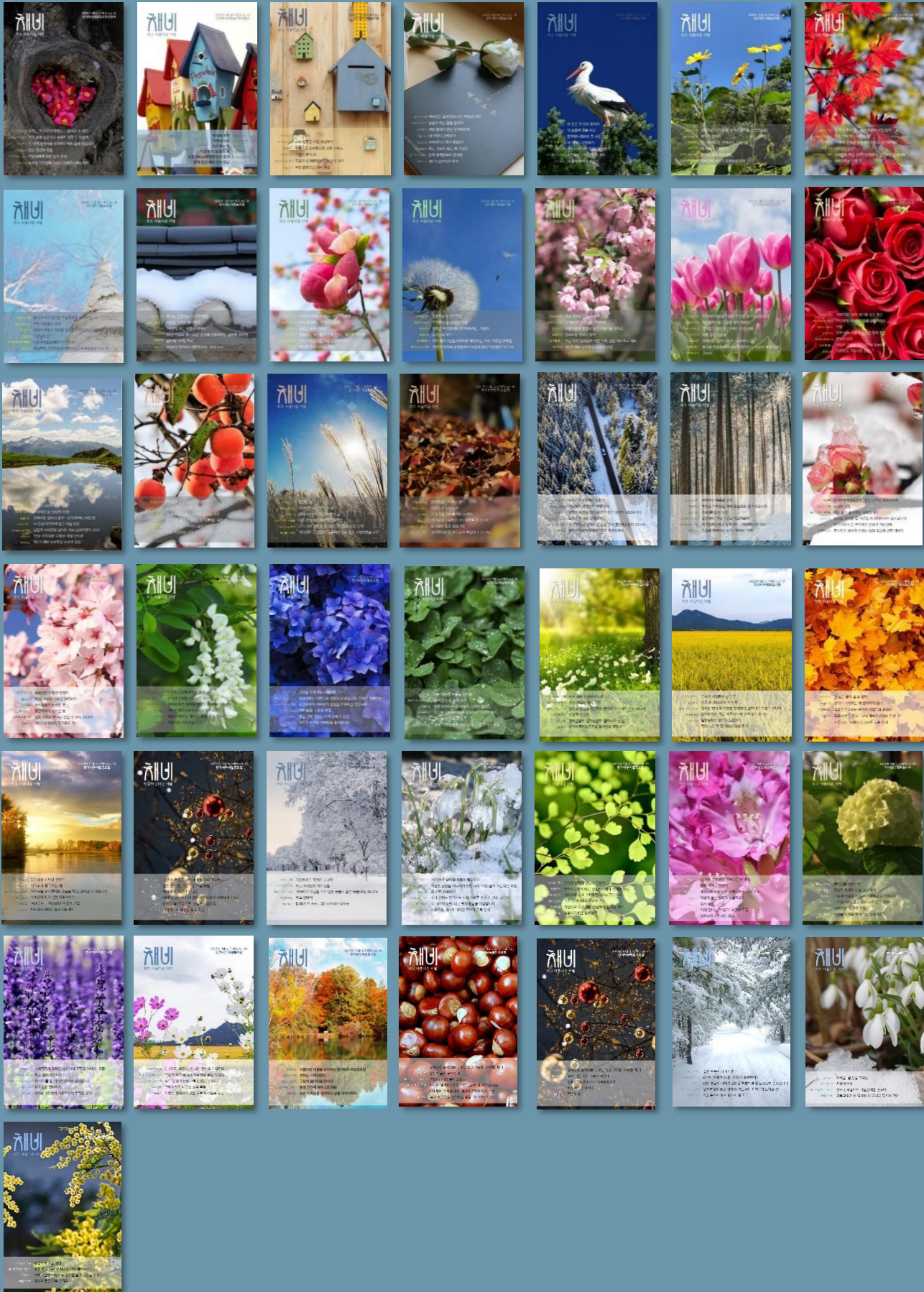
'채우고 비우고' 오픈채팅방은 삶과 죽음을 의미 있게 설계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공간입니다.

삶과 죽음에 관한 의미 있는 정보를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공간이며, 공간채비를 중심으로 스터디, 취미 생활, 교제를 위한 오프라인 모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여 링크) <https://open.kakao.com/o/gO5HMzme>

채비레터 과월호 목차

클릭하면 다운로드 됩니다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은 대한민국 대표 장례서비스 협동조합입니다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은 풀뿌리공제정신에 공감한 이들이 공동체의 힘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모였습니다.

조합원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자발적 경제조직이며 상업화한 장례문화를 개선하고 올바른 인식을 고취할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직계존비속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든 최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장례지도사와 접객관리사가 같은 조합원으로 한 식구처럼 믿을 수 있습니다.

맞춤형 · 직거래공동구매 방식으로 소박하고 품격 있는 장례를 구현하며 갈수록 고비용화 · 대형화 · 독과점화하는 병원장례식에서 벗어나 추모의 깊이가 있는 ‘작은장례’를 지향합니다.

한겨레두레협동조합

www.chaebi.life

서울시 중구 서애로1길 11 충무로 헤센스마트 B113호(사무실), 상가 201호 (공간 채비)

가입문의 1800-9517 장례문의 1588-9517 대관문의 02-739-9517

채비 뉴스레터는 조합원 참여를 환영합니다

장례 문화에 대한 투고(장례후기, 에세이, 시 등), 조합에 대한 의견, 개업/사업 소개 등 함께 나누고 싶은 글을 보내주세요(master@handurae.org)